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작성일 : 2009. 10. 25 (일) 새벽 2:00

작성자 : 정예인 목사 (대전 대명 교회)

사랑하는 섬리의 목회자들아.
요즈음 정신이 없을 것이다.
전도하느라 관리하느라 행사 참여하느라 바쁘지.
너희의 수고를 아노라.
하지만 일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나를 중심해서 살아야 한다.

목사들이 다 깨어나야 한다.
지금은 너희 모두가 나를 맞고
불같이 말씀을 전하며 뛰어야 될 때이다.
생명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
절대 한 눈 팔면 안 된다.
목회자가 방향을 잘 잡고 가야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다. 모두들 너희들부터 술선수범하여 전도해야 한다.
전도에 충력을 다하여라.

절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라.
데려온 생명들을 놓치면 안 된다.
목숨 걸고 해 보아라.
나의 제자들이 목숨 걸고 뛰었듯이 너희도 뛰어보아라.
하면 된다.
절대 의식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밀어붙여 보아라.
성도들과 하나 되어서 나가야 한다.
이제는 뛰는 일만 남았도다.
행하는 일만 남았도다.

나와 같이 뛰자. 힘을 내어라.
뒤쳐지지 말고 너희가 앞장서서 뛰어다오.
부탁한다. 부탁한다.
사랑하니 내 말 듣고 행해줄 것을 믿는다.